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공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2009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등을 공고하였다.

1.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
2. 신청기한 : 2007. 11. 30.(금) 18:00 까지, 직접 또는 우편제출 가능
3. 신청서류 : 소정의 양식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 50부, CD-ROM 2매
4. 총 입학정원 :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한다.
5. 선정방법 :
 - 우수한 법조인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을 단위로 한 5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 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한다.

고등법원 소재지	지역
서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대전, 충남, 충북
대구	대구, 경북
부산	부산, 경남, 울산
광주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각 권역 내 설치인가 대학 선정 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사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한다.

- 법학전문대학원(개별 대학원의 입학정원 포함)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설치 인가한다.
6. 심사평가
-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실적평가는 원칙적으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설치인가 심사기준 총괄표〉

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수	배점	배점 비율(%)
① 교육목표	3	40	4.0
② 입학전형	7	60	6.0
③ 교육과정	16	345	34.5
④ 교원	10	195	19.5
⑤ 학생	6	125	12.5
⑥ 교육시설	11	102	10.2
⑦ 재정	5	55	5.5
⑧ 관련학위과정	3	30	3.0
⑨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책임	5	48	4.8
계	66	1,000	100(%)

● 국립대학혁신 우수사례 7건 선정·시상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26일 43개 국립대학의 기획처장 등 국립대학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제2회 국립대학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43개 국립대학(일반대 24, 교육대 11, 산업대 6, 전문대 2)에서 제출한 136건의 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5건의

사례를 각 대학에서 발표하고, 혁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 ◎ 최우수상 : 서울대학의 “과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우수상(2개 대학)
 - 경북대학 : “기업 위성 연구실 지원사업”
- ◎ 환경대학 : “관·학 협력을 통한 친환경 경관 농장 조성”
- ◎ 장려상(4개 대학)
 - 목포대학 : “폐과(전공) 예고제 등 학사 운영 혁신”
 - 부경대학 :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학과 평가시스템 운영”
 - 전북대학 : “전북대학 KEN(Kindness-Excellence-Non-stop) 사관학교”
 - 한국해양대학 : “학교 환경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방안”

국립대학혁신 경진대회는 '03년 이후 정부혁신 추진에 이어 대국민 접점기관인 국립대학으로 혁신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모든 국립대학에서 이를 공유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자신감과 추진 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립대학의 혁신은 대학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변화·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대학의 내부 운영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두어 대학의 교육력 및 연구력 제고, 성과 중심 행정시스템 운영, 대·내외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진행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들이 혁신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사례들을 발굴하여 대학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국립대학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2008학년도 교육대학교 입학정원 310명 감축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10월 23일 전국 교육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포함) 입학정원을 '07학년도에 이어 '08학년도에도 대폭 감축한다고 발표하였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로 초등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전국 교육대학교 입학생 규모를 '07학년도에 총 506명(8.1%)을 감축한 데 이어, '08학년도에도 총 310명(5.4%)을 줄여 5,400명 선을 유지하는 한편, 그동안 모집했던 편입생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기로 하여 초등교사 양성 인원이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관계부처(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전국 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교육대학교 학생대표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령아동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비한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해 향후에도 교육대학교 입학정원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기본계획의 발표는 수험생들의 안정적 수험준비를 위하여 학년도 개시 18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고교·대학·유관기관 등 현장의 의견 수렴, 행정예고 등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대학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대학 자율화·특성화와 연계하여 전형을 다양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거진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고,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각 대학은 전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 등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술의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에 대한 제한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원칙으로 계속 유지된다.

주요 일정

- 수능시험 : 2008. 11. 13(목) / 성적 통지 : 2008. 12. 10(수)
- 수시 1학기 모집 : 2008. 7. 14(월) 8.31(일)
- 수시 2학기 모집 : 2008. 9. 8(월) 12.14(일)
- 정시모집 : 2008. 12. 18(목) 2009. 2.15(일)
- 추가모집 : 2009. 2. 17(수) 2. 23(월)

2007학년도까지 3월 초까지 실시하던 추가 모집 전형일정을 앞당겨 2월 말일(2.17~2.28)까지 전형을 완료하게 함으로써 3월 1일부터 모든 대학이 신학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 제2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10.11(목) 2007년도 ‘제2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의제로서 제안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활성화 방안(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문화관광부의 ‘국가인적자원의 문화력 제고를 위한 문화부-교육부 협력방안’, 교육인적자원부의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 2007 개최’, ‘2006년도 인적자원 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이 보고되었다.

● 교사 신규임용 시험제도 개선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직적격자와 실용외국어 수업능력자를 선발하기 위해 교사임용 공개전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을 '07.10.1 개정 공포하였다.

그동안 교사임용시험은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1차 필기시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교사로서의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정책연구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두루 거쳐 마련한 임용시험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현행 2단계 전형방식을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 제3차 교직적성 심층 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현시험의 3단계로 강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용외국어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어 구사력과 외국어 수업능력을 지닌 교사 선발을 위해 영어교사는 1차 영어듣기 평가를 포함하고, 외국어교사는 2차 논술형,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며, 초등교사에게도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에서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같은 신규교사 선발제도 개선에 따라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에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수업능력을 집중 검증함으로써 교직적격자 및 실용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고, 초·중등교육현장과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간의 괴리를 좁혀 현장적합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학 간 학력조회 업무절차 간소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간 학력조회 업무를 사서함방식의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학력조회자료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2007년 12월부터 전국 400여 대학교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학력조회자료 유통시스템'은 그동안 대학에서 학력조회가 필요한 경우, 팩스나 일반우편을 통해 오프라인방식으로 학력조회업무가 이루어져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으나, 전자문서유통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유통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처리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학력 위변조 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시스템의 효과적

인 활용을 위해 전국 400여 대학교 학적담당부서에 ID를 제공하고, 학력조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산하단체나 일반기업에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 61개 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계획

확정·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감사처분 미이행 대학, 대학설립인가조건 미이행 대학, 학생정원자율채정기준 미이행 대학, 대학통폐합 승인조건 미이행 대학 등 7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총 61개 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제재사유별 제재대상 대학

제재사유	최종 제재 대학 수
감사처분 미이행	17
대학설립 인가조건 미이행	7
대학 정원자율채정기준 미이행	14
대학원 정원자율채정기준 미이행	16
예·결산서 미공개	10
대입전형 업무처리 부정·부당	4
사립대학 통폐합 승인조건 미이행	1
합계	61(8)*

행·재정제재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학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교육여건·인허가 조건 이행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을 보장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재정제재 수준 조정에 적극 반영하였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밝혔다. 

지난 호 목차(2007. 9 · 10)

▶ 총장 칼럼

로스쿨식 교원전문대학원, 과연 타당한가? 송광용(서울교육대학교 총장)

▶ 변화하는 우리 대학

지역발전과 함께 세계 중심을 지향하는 우석대학교 우석대학교

대학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대학,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 특집 I | 한국적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로스쿨 도입경과와 주요 쟁점 김병주(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법률시장 소순무(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로스쿨 도입과 대학시장 이기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로스쿨 도입,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외국의 로스쿨 현황 박상기(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학의 로스쿨 준비와 추진현황 박용현(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특집 II | 고등교육경쟁력과 조기졸업제도

조기졸업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청년실업과 대학졸업 유예 채창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입직연령 하향을 위한 조기졸업제도의 활용방안 정기섭(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기고

대통령 후보자들은 교육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권태한(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정책제언

대학입학사정관계 지원사업 도입의 과제 및 추진방향 남보우(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기회균등화단계의 문제점 및 대안 이병로(계명대학교 입학처장)

'정원 외' 기회균등화단계 타당한가? 김한배(호남대학교 입학관리처장)

▶ 해외 대학교육 동향

일본 대학교육의 개혁 동향: 학부교육을 중심으로 현경석(한서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 기획연재

대학생 취업문제, 대학의 본질적 기능 회복이 관건이다 부미현(한국대학신문 기자)

▶ 대학산책

글로벌시대 함께 사는 선진경제의 길 이영련(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세미나 지상중계

200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 한국 수학 · 과학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통개로 살펴본 고등교육

▶ 대교협 주요일지

▶ 대학교육 정책소식

▶ 지난 호 목차

대학 교육

2007 11 · 12 vol. 150
Higher Education

격월간 **대학교육** 통권 제150호

- 발행인 : 이장무
- 편집인 : 김영식
- 기획·편집 :
대학교육지 편집·기획위원회
- 자문 :
대학교육지 편집자문위원회

<대학교육지편집자문위원회>

- 위원장 :
박승철(성균관대 교수)
- 위 원 :
김건기(광주대 교수)
오대영(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두희(고려대 교수)
이영무(한양대 교수)
차희원(이화여대 교수)
강병운(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백정하(대교협 정책연구부장)

- 창간 : 1983년 1월 1일
- 인쇄 : 2007년 11월 15일
- 발행 : 2007년 11월 19일
-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0-74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Tel : 02 - 6712 - 0127

Fax : 02 - 6712 - 0120

http://www.kcue.or.kr

- 제작 : 도서출판 써이아알
http://www.circom.co.kr
- 정기구독료 : 20,000원(연간)

ISSN 1225 - 7982